

# 2040년까지 완성차 80% 전동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 현대차 '2045년 탄소중립' 선언

사업장 탄소배출량 줄이고 수소 전기차 라인업 확대

로보택시로 탄소중립 한 발짝  
뒀던 'IAA 모빌리티' 참가  
'아이오닉6 콘셉트카'도 공개



(왼쪽부터)아이오닉5 로보택시,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콘셉트카인 '프로페시(Prophecy)', 하반기 공개 예정인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콘셉트의 실루엣.

현대차자동차가 친환경 기술바탕의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으로 오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현대차는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보도발표회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순배출이란 전체 배출량에서 제거 또는 흡수된 양을 차감한 실질적인 배출량을 뜻한다.

'2045년 탄소중립' 구상의 핵심은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 플랫폼 ▲그린 에너지를 축으로 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이다.

전동화역량의 지속적인 확대는 물론 에너지 전환 및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미래 세대이자 탄소중립의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을 위한 지속가능

한 미래를 앞당긴다는 것이 현대차의 복안이다.

현대차는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협력사), 사업장(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75% 줄인다.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도입해 2045년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우선 전체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운행 단계에서의 배출 저감을 위해 제품 및 사업 구조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한다.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까지 전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제네시스도 현대차의 완전 전동화 추진에 힘을 보탠다.

특히 수소 전기차와 연료전지시스템은 현대차가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RV 라인업을

현재 1종에서 3종으로 확대한다. 2023년 하반기 ▲넥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다목적 차량(MPV) 스타리아 급 파생 수소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후 2025년 이후에는 ▲대형 SUV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이날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모셔널(현대차그룹과 애플이 공동으로 설립한 자율주행 합작법인)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실물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한 로보택시를 탄소중립 비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대표적인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더 친환경적이고, 더 안전한 로보택시의 확산으로 자동차를 경험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모셔널을 통해 2023년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이 가능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2028년에 도심 운행을 위한 전동화 UAM을 시장에 내놓고 2030년에는 인접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제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 번째 축은 '그린 에너지'다. 현대차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IAA 보도발표회에서 "2045년까지 제품과 사업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시진핑 한 마디에 '일사천리' 베이징 거래소 출범 '초읽기'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시진핑 발표 하루 만에 법인 설립 거래시간 규정 등 세부사항도 나와

중국을 일처리가 느리다는 '만만디(慢慢的)'는 옛 말이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베이징 거래소) 계획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법인이 만들어지더니 몇 일 만에 기업공개(IPO) 규정 등 세부 사항까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베이징 거래소는 신속하게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베이징 증권거래소 유한회사(Beijing Securities Exchange Limited Co)'는 지난 3일 자본금 10억위안(미화 1억5500만달러)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시 주석이 지난 2일 한 회의에서 베이징에 3번째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이다.

등록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 거래소는 증권 거래를 위한 위치 및 시설 제공, 증권 거래 조직 및 감독, 증권 시장 관리 서비스 등을 영위한다.

법인 대표는 장의 벤처기업 전용 거래소인 신삼판(新三板·NEEQ)의 쉬밍 회장이자. 쉬 회장은 "베이징 거래소는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배구조는 향후 계속해서 최적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일에는 신삼판 공식 웹사이트를 통

해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과 거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다.

먼저 베이징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예상 기업 가치가 15억위안 이상 ▲지난 2년간 연구 투자 5000만위안 이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 폐지 요건도 명시했다. ▲60 거래일 연속 주주 200명 미만 ▲최근 회계연도 순손실 또는 매출액 5000만위안 미만 ▲재무보고서 비공개 등이다. 다만 상장 폐지됐더라도 향후 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돌아올 수 있다.

중국 런민대학 왕펑 부교수는 "중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며 "상장과 폐지 체계가 분명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으며, 기업들 역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시간과 가격제한폭 등 세부내용도 공개됐다. 베이징 거래소는 상장 첫 날에는 상·하한가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이후 등락제한폭은 30%다. 향후 가격제한폭은 조정 가능토록 해놨다.

베이징 거래소 설립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베이징 거래소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상장 통로인 동시에 벤처 투자 기관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출구 채널"이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80% 할인!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여 개

SINCE 1996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 02)2163-0044

☎ 010-5183-0048

📧 ID: KOREAHONGSAM

✉ haetter@naver.com

거래(카드,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